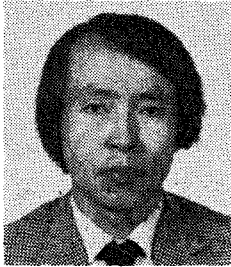


辨理士 合格手記

나는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



李 宰 政

〈第24回 辨理士試驗合格〉
〈太平洋化學 特許課代理〉

最近들어 우리나라에서도 特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企業의 大小를 불문하고 權利에 대하여 민감해져 出願이나 異議申請등이 증가되고 라이선스 業務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時代에 企業間의 競爭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獨占權을 확보하거나, 他社의 獨占權에 대한 對策을 樹立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特許管理가 必要한 것이며 오늘날과 같이 技術競爭이 극심한 社會에서는 特許管理의 良否에 따라 企業의 存亡이 左右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企業의 特許管理要員은 물론 一般人들의 辨理士試驗 希望者들이 부쩍 늘고있다.

이에 本誌는 이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辨理士 試驗에 합격한 3人的 合格手記를 3회에 걸쳐 連載하기로 했다.

〈編輯者 註〉

■ 特許課 發令이 契機

合格의 소감을 쓴다는 것만해도 조금은 부자연스러워 질수밖에 없는 노릇인데 더우기 수기형식이 불가피할 本誌의 자못 부담스런 題下에서오는 무게감으로 더욱 움츠러 드는게 사실이다.

辨理士試驗도 資格試驗의 일종이라 그 응시생의 職業내지 처한 환경이 다양해 질수밖에 없는것인데 특히 이번號에서는 一般企業體에서 근무하면서 응시하여 합격한 事例를 게재코저 한다는 編輯者의 辯이 있어 잠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一般企業體에서 근무하면서 辨理士試驗에 응시하여 합격 하였다고해서 그리 널스러울것도 없는것인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時間確保가 더없이 절실할 수 밖에 없는 시험준비에 있어 一般職場人의 경우 쉽게 집적이 가능할 다소간의 어려움점과 사실 이러한 部類의 應試生들이 의외로 많으며 앞으로도 그 추세는 증가할 것으로 豫測되는 점에 미루어 다소나마 그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는 期待感에 조금은 부담을 털어내고 筆者의 經驗談을 피력해 보고자한다.

어떠한 일에도 그일을 하게된 動機내지 過程이 중요한 의미가 될수있을 것인바 내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도 좀 생소했던 辨理士試驗을 보게되기 까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79년 겨울. 軍복무를 마치고 社會로 환원되던 그때 復學을 앞두고 나는 제법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었다.

專攻關聯 課들을 科學院앞 어느 서점에서 간혹사서책곳이에 꽂아놓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땀에는 학부를 卒業하고 科學院에 進學하리라고 進路를 정해 놓았는데 도무지 自信이 서지를 않았던 것이다. 당시의 심정으로는 科學院에 進學키 위한 先發시험은 충분히 통과할수 있다는 다소 오기같은 自信은 있어 도무지 내 專攻의 그 끝없는 깊이를 파고들 엄두가 나질 않았던 것이다.

결국 81년 高麗大 産業工學科를 卒業하고 지금 勤務하고있는 會社에 入社하여 社會生活의 첫발을 던게 되었고, 공부할 수있는 時期에 좀더 노력해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듬해 母校의 經營大學院 貿易學科 碩士 過程에 進學하여 職場生活과 병행된 학업계속으로 땀에는 제법 열심히 노력 하였던 시절이었다.

5學期에 걸친 過程을 끝내고나서 다시금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 마음을 두어왔던 公認會計士試驗을 準備하려던 참에 85년 7월 지금 勤務하고

있는 特許課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결국 이것이 내가 辨理士試驗과 만나게 되는 자연스런 契機가 된 것이다.

사람의 能力이란 전체적으로 計量해 볼때 결국 서로 비슷해 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自己의 적성과 그 指向하고자 하는 일이 근접하게 될때 비로소 그 능력이 극대화 되어 他와의 關係에서 相對的 優位를 점하게 되는 法일 것이다. 特許課에서 勤務하게 되면서 工業所有權 關聯業務가 비교적 내 적성에 맞는 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따라서 나도 언젠가는 辨理士가 되기로 決心 하기에 이르렀다.

自信感 가지고 挑戰 決心

문제는 그 절실하도록 되고싶은 辨理士 資格試驗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데에 있었다.

물론 지금과는 狀況이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로서는 特許·實用新案·意匠·商標法을 지칭한 工業所有權 4法和 外國語 선택 1과목으로된 1次 試驗이 合格의 당락을 좌우하는 決定的 關문 일수밖에 없고 主觀式 論述型이 요구하는 광범한 지식과 암기사항을 극복하는데 다소 멍칠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적당한 노력으로 성취되어질 目標는 이미 目標일수가 없는 것이다. 어려운 目標일수록 왕성한 戰意를 일깨우는 法이며 그 성취감도 배가됨을 믿는 까닭에 그 만만치 않은 시험에 더욱 매력을 갖게 되기도 사실이었다.

1次試驗은 그 科目으로 보아 法學을 專攻하지 않은 여타 응시생들에게는 相對的으로 더욱 부담이 가는 것인데 나로서도 이를 어떻게 극복 하느냐가 주요 關鍵인 셈이었다.

사실 나는 高校時節 대학입시에 있어 文科系列學科보다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은 막연한 생각으로 理科班에 들게 되었고 이후 大學에서도 工學分野를 專攻하게 되었지만 제대후 科學院 進學을 포기한 狀況에서, 卒業에 즈음한 취지시험 준비도 專攻科目을 제쳐놓고 英語에 주력하면서 經營學을 공부 하게 되었다.

마지막 2학기 동안 전공과목과 병행하여 經營學科에서 이수하는 주요과목을 혼자 공부해 두게 되었고 이후 몇군데 에서의 入社試驗에서 英語와 經營學을 선택하여 낙방해 본적은 없었다.

여기에서 전공컴플렉스는 다소 벗었다고 自信하게 되었고, 83년 經營大學院 入學試驗에서 次席으로 合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自信感을 갖게한 중요 계

기가 된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工業所有權法을 中心으로한 辨理士 試驗科目 역시 여태까지 생소한 部門이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大學院 에서의 專攻역시 貿易學이고 보니 그야말로 一貫性없이 이어졌은 學業과정의 새삼 한심스럽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異質分野에 대하여 제법 탄력성을 갖춘 적응력과 특유의 승부근성을 발휘하던 못할것도 없다는 자신이 있었다.

더우기 85년까지 시행된 몇차례 시험에서 外國語 선택과목(특히 영어)의 出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50점대를 넘긴 應試生이 거의 드물 정도로 합격여부를 가름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나름대로 영어에 自信을 갖던 나로서는 辨理士 試驗에 마음이 동한 중요 계기가 된 것이었다. 제법 당돌하게도 80점대에 육박하는 高得點으로 점수차를 벌리던 충분히 勝算이 있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었다.

85년 11월초, 일단 다음해에 실시되는 제23회 辨理士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一般의 通念으로는 職場生活와 병행된 시험공부에 무척 어려움이 많을걸로 생각이 되겠지만 다행스럽게도 나의 근무부서가 特許課이고보니 물론 어느정도의 장애요인은 있었겠지만 시험공부 그 자체가 결국 實務에서 요구하는 기본지식들인 까닭에 職場에서도 몇시간씩은 책을 볼 수 있게되고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關鍵인 공부시간 確保面에서 조금은 다행스러운 편이었다.

우선 工業所有權에 대한 기본서를 두어번 읽는 것으로 시작하여 나름대로의 전략과목인 英語도 틈틈이 병행하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약1달여를 지나고보니 막연하게나마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自信이 생겼다.

關病生活 속에서 試驗준비

사람의 日常에는 간혹 의외의 不幸이 끼어든다던가. 그해 12월11일 오전. 평소 가깝게 지내던 職場先輩 K兄의 父親出喪이 있던날 會社를 나서 미리 준비된 버스로 옮겨 타려던 순간 왼쪽에서 달려드는 自動車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보도위에 나뒹굴었다.

결과 왼쪽무릎에 인대가 끊어져 다리가 휘어지는 등 부상의 정도가 제법 심하여 이른바 장기치료에 돌입하

게 되었다.

이틀후 수술을 받고 그해 12월을 시험공부에 마음을 쓰기에는 내마음이 너무 흐트러져 있었다.

육체적 고통과 부자유가 정신적 사고의 집중력을 의외로 쉽게 허물어 버릴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된 때였다.

그러나 차츰 내가 당한 불행을 現實로 認識케되고 병원생활에 꽤 익숙해지던 이듬해 1월 중순경 나는 본격적으로 시험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다.

日常의 活動에서 완전히 차단된 병원생활은 時間確保面에서 볼때 공부하기에는 더없이 좋을것이고 時期의으로도 제23회 辨理士試驗을 약5개월 정도 남겨둔 때여서 더이상 물러설수도 없는 狀況이었다.

3월중순경 까지의 약2개월동안 기상및 취침시간을 비교적 정확히 지켜가며 꽤 상당한 학습량을 쌓을수가 있었다.

이 기간동안 工業所有權 關聯 기본서 2권, 主觀式問題集 2권을 집중적으로 반복학습 하면서 암기사항을 노트 1권정도 분량으로 나름대로 요약해 두었고 英語도 문법·어휘력·독해력등 전반에 걸쳐 착실히 준비해 나갔다. 지금 돌이켜 보아도 그 기간동안 가장 열심히 공부 했던것 같다.

86년 3월9일 다시 出勤을 할수있었다. 다소 보행이 불편한 왼쪽무릎에 보조대를 부착하고, 목발을 짚었지만 막상 日常으로 되돌아오니 마음은 더없이 편안하였다.

물론 오후에는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와 무릎굴절각도 호전을 위한 물리치료에 전념하여야했다. 당시 그놈의 물리치료라는것이 어쩌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40여분 동안의 치료를 받고 병실로 되돌아오면 온몸이 맘에 흠뻑 젖어 정말 기진할 지경이었다.

아 물론 이때부터 약3개월정도를 남겨둔 시험공부기간 동안은 주로 主觀式問題集을 中心으로 主題에 대한 論點構成및 세부암기사항에 주력하면서 特許및 意匠法 분야는 特許法概說(운동렬外 2인譯)·意匠法解說(운중렬譯)등 日書 번역본을 참고하여 보조적으로 理解의 폭을 넓히려 애썼다. 물론 英語도 나름대로 착실히 준비해 나갔다.

시험을 하루 앞두던날 밤 의식적으로 배제하려 들던 들수록 숙절없이 죄어오는 긴장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회백색의 회부연 병실천정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해 잠겼다.

經濟的으로 그리 넉넉치 못해 조금은 어렵게 다녔던 大學時節, 4년전 사랑하는 이와 만나고 그 결혼과 함께

시작했던 퇴근후의 大學院過程, 辨理士가 되기로 뜻을 세우자 곧바로 다가선 육체적 고통.

내 願으로하여 이르지 않았던 까닭으로 당신의 자식이 事故를 당했다는 사실을 한달이 넘도록 모르고 계시다가 부산서 상경하신 어머니는 現實의 고통을 장래의 성취로 전환코저 안간힘쓰는 내가 보시기에 안쓰러우셨던지 30이 넘은 나를 “아가”로 지칭하며 “아가 그놈의 辨理士인지 된지하는 시험에 다음쓰지말고 제발 치료나 좀 열심히 받아 어서 일어서거라”하시며 눈가를 훔치셨다.

딸아이 주원이의 기도도 무색한채 계속 이어지는 이 지리한 병원생활, 난 도저히 이 勝負에서 물러설수가 없었다. 비록 공부에 착수한 期間은 짧았다 할지라도 내가 짜낸 時間의 농도는 무엇보다 진하다고 스스로에 다짐하였다.

외출 형식으로 病院나서 試驗場에

같은 병실의 낮익은 患者들과 병원 사무장님의 격려를 뒤로하고 택시에 몸을 실었다.

工業所有權 4法은 비교적 應試生들의 豫想을 크게 빗나가지 않은 問題들이라 그런대로 答案작성에 애를 먹지 않았고 마지막 英語科目은 듣기보다 難易도가 좀 낮아진듯하여 나름대로 自信하고 있었다.

1次 試驗結果를 대체적으로 낙관하면서 곧바로 2次 試驗을 準備하고 있던 어느날 좀 때늦은 점심을 물리고 동료환자와 장기판에 막 앉았는데 간호원실에서 電話받으라는 전갈이있어 수화기를 들었다.

“축하해! 李兄. 최고득점 이랍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J兄의 목소리에 난 잠시 전율스런 감격에 눈을 감았다. 도대체 이 주체치못할 은혜로움을 주시는 이는 누구실가, 난 모두에 감사해야했다.

最近 수습辨理士 研修를 받으면서 확인해본 성적은 特許法(62), 商標法(44), 意匠法(73), 實用新案法(68.5), 영어(80)으로 平均 65.5가 되어 豫想의로 좋은 성적을 얻어 最高得點을 하게 되었다.

2次試驗 選擇科目은 별다른 專攻이 없던 나로서는 商品學과 行政法을 擇해 놓고 있었다.

商品學은 大學時節 마케팅部門에 조금 공부를 해둔게 있다는 생각에서였고 行政法은 암기력에 다소 자신이 섰던 까닭에 택하게 된것인데 문제는 時間이 너무 촉박하였다.

이즈음 병원측에서는 치료경과가 의외로 저조하니

무릎굴절각도 재생을 위한 재수술을 해야한다고 증용하던 참이었다. 사실 지난 4월부터 계속 그러한 주문이 있어왔으나 試驗을 불과 1~2個月 앞둔 狀況에서 다시 제동이 걸린다면 失敗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어물정 뒤로만 미루어오면 참이었는데 이젠 더이상 미룰 수도 없었다.

2次試驗이 끝나는 9월중순경이면 어떻겠는가고 反問하였더니 그때는 너무 늦어 재수술을 하더라도 結果를 낙관할 수 없다는 담당 선생님의 말씀이 있어 결국 7월 말경 재수술을 받고 약 열흘간 끔찍없이 칩대에 누워 있어야했고 이때는 1次に 合格하였다는 느긋함 때문인지 전혀 그런 戰意가 살아나지 않았다.

1次 最高득점에, 2次 失敗의 쓴잔

2차시험에는 失敗하였다. 아마도 行政法이 과락이 있을게다.

노력한만큼 주어지리라는 常識을 비웃듯 교만해져 나태해 있었고 行政法에 있어서는 주제넘게 중요하다고 判斷되는 부분을 밝혀하여 공부해둘 정도였으나 난 깨끗이 結果에 승복하고 1年을 기다려야했다.

87년 9월초. 그 지리했던 病院生活를 마감하고 退院을 했다. 물론 완치된것은 아니었으나 보행에는 별 불편이 없을 정도였고해서 통원치료를 받기로했다. 개인 소지품을 챙겨들고 병원을 나서던날 여러갈피의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不幸은 不幸 그자체에만 머물수없는 變身의 속성을 지녔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여 비록 未完成에 그쳤지만

난저 空間속에서 忍苦의 세월을 딛고 조그만 성취를 얻었고, 苦痛받는 者들이 他에게 베푸는 그 뜻뜻한 삶 의 현장에서 가장 은혜로운 일이 서로 위해주고 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체롭게 해준 시간이었다.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감사

이듬해의 24회 辨理士 시험에서는 選擇科目을 民事訴訟法과 行政法의 法學 2과목으로 바꾸어 선택해놓고 1년이라는 다소 넉넉한 期間동안 退勤후 독서실을 전전하면서 나름대로 꾸준히 공부해온 결과 行政法(68), 民事訴訟法(62.5), 平均(65.2)의 성적으로 무난히 合格할 수 있었다.

내가 염원했던 조그만 성취앞에 겸손해지고 이제 또 다시 새로운 出發點에 선 지금 많은 분들에게 감사로 드러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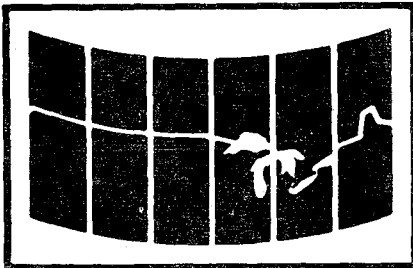
職場에서도 틈틈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마썬주준 特許課 職員들, 공부하는 過程에 있어 여러모로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윤동렬·조치훈 辨理士님,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성껏 뒷바라지 해준 아내, 아빠는 늘상 독서실만 간다고 투정부리기도하던 딸아이 주원이, 끈끈한 형제애로 나를 격려해주는 동생들, 항상 나를 위해 天主님께 기도드리는 부모님, 그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애쓰만큼 거둔다는 凡常한 眞理를 믿는 까닭으로 이 試驗에 뜻을두고 새로이 出發點에 서게된 應試生여러분 모두에게 健康과 노력이 함께하면 반드시 그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두서없는 이글을 마감합니다.

<❧>

알림

파리협약에 의한 기장 보호요청

미·캐나다 국경문제조정을 위한 국제합동위원회의 아래기장이 파리협약 6조의 3(3)(b)규정에 의거, 야국에 대하여 보호요청이 접수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요청기장

특 허 청 장